Ethylene, 1100달러로 90달러 폭락!

FOB Korea 1100-1110달러 형성 … 공급증가·중국연휴 불확실성 증폭

Ethylene 가격이 9월24일 FOB Korea 톤당 1100-1110달러로 90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Deepsea Cargo 공급 외에도 타이 생산기업들이 Cargo 판매에 나섬에 따라 폭락세를 나타냈다.

타이완 및 동남아 판매기업들은 CFR 톤당 1150달러를 요구했으나 구매기업은 10월 거래를 마치고 11월 협상 준비에 나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구매기업들은 CFR SE Asia 톤당 1100달러 이하를 요구한 것으로 아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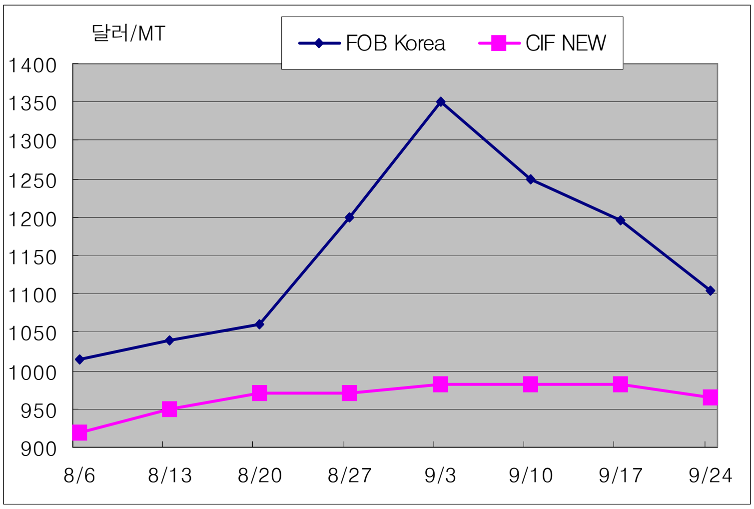
타이는 10월 Cargo 공급가격이 FOB Thailand 톤당 1100달러에 형성됐으나 CFR SE Asia 구매의사가 저조해 무역상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무역상들은 10월1-7일로 다가오는 중국 춘절연휴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매를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도 거래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구매가격은 FOB 톤당 1100달러 이하로 나타나 생산기업들은 1100달러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타이의 ROC는 Map Ta Phut 소재 나프타 크래커에 대한 정기보수 기간을 당초 11월에서 2005년으로 연기했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9월24일 CIF NWE 톤당 960-970달러로 17달러 하락했으며 3/4분기 계약가격은 FD NWE 톤당 635유로를 형성했다.

<화학저널 2004/09/3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